

## 소득 줄어든 모든 채무자, 내일부터 원금상환 최대 1년 미뤄진다

조선일보

다음달 1일부터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든 다종채무자는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아...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

## 대출 미리받아 규제 피하고... '가족찬스' 꼽수도

매일경제

대출 수요자들은 규제 첫날부터 '구멍'을 찾아....대출을 나눠 받거나 대출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등 거론....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쓸리는 '풍선효과'도 걱정... 지난 3분기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39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8267억원 증가...

## 증권사 인수 숨고르는 우리금융, 벤처캐피탈로 눈 돌렸다

이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벤처캐피탈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5대 금융지주 중에서 벤처캐피탈을 보유하지 않은 곳은 현재 우리금융이 유일....  
벤처캐피탈은 비은행 부문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방향성과도 일치.... 상반기 기준 우리금융의 전체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은 20.9%에 불과....

## 케이뱅크 3분기 누적 703억원 적자...여신잔액 증가세

뉴스1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703억원의 적자를 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39억원 줄어....  
같은 기간 여신잔액은 2조10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7% 증가... 3분기 연체율은 1.22%로 2분기 2.36%대비 1.14%포인트 하락....

## 순항하는 캐롯손보... '디지털금융' 통했다

디지털타임스

올해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 캐롯손해보험의 매출이 최근 크게 확대....올해 1분기 매출 24억원에서 2분기 65억원, 3분기 191억원까지 성장....  
"지난해 출범 당시 직원 수는 30~4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0명이 넘게 채용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금융당국 IFRS17 시행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

현대경제신문

금융당국이 IFRS17을 대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핵심....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산업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해 넘기나...라임은 2일 퇴출

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해를 넘길 듯....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전·현직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 금융당국 '공매도 처벌강화' 본격화...내일 가닥 잡는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일부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에 개인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